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현장 방문

송하진 도지사, 완주산단 위치 슬라파크 코리아 공장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완주산단내에 위치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주)슬라파크코리아 공장을 방문

해 생산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슬라파크코리아(대표 박현우)는 2007년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독일 슬라윌드AG와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2009년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 전량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2011년에는 독일 합작회사 지분을

완전 인수하였고, 당시에 연매출액 5천437억원, 최대 고용인원 550여명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회사로 부상하기도 했다.

최근, (주)슬라파크코리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부응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태양광 기업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수상태양광 부력체 합작기업을 새만금산단에 설립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박현우 대표는 제품 생산공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모든 생산공정은 환경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오해가 있는 태양광 모듈에서는 납(Pb) 성분이 절대 검출될 수가 없다"면서 "현재 규정상 납이 검출되면 KS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규정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조공정 안전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태양광 모듈을 국내에서도 생산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내외 많은 연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전북이 주력 거점이 되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2일 완주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주)슬라파크코리아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행정에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가 박현우 슬라파크코리아 대표로부터 친환경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 및 생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239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의가 진안군의회 주관으로 22일 신약초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병술 전북 시·군의회 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이항로 진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상호간 공조 및 정보 교환을 비롯해 각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보호 및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상 화장장 관련 입지 조건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



정하는 법적·제도적 보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면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달 말 종료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현재 카드이용률과 발급률이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리고 있는 2018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이 11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가능일은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재단은 아직까지 카드 발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지원금 미사용자는 서둘러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혜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7세 이상(201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신청자에게는 연간 7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당 1매 발급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합산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도서, 음반, 영

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숙박, 철도, 항공/시외, 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체육(관광기념품, 체육사, 체육용품사,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 등) 등에 사용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11월 20일) 전북도의 발급률은 96.44%이다

한편, 총 상품 17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용자 수기 공모전'이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가까운 주민센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팀(063-230-7463)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사회적 대화 시작...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민주노총 불참 17명 체제로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

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 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 '청춘마이크' 추가 공연

오늘 익산·내일 남원서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뜨거운 관객 반응으로 청춘마이크 전북권 추가 공연을 오는 23일, 24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금관 앙상블 팀 내인브라스와 라스트포인, 23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문화터미널 익산(익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이희정 판소리밴드, 난버벌 퍼포먼스 거리 미술사 매직서커스가 공연한다.

또한, 24일 오전 11시에는 문화터미널 남원(남원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기타듀오 이상한계절, 라이브로 펼쳐지

는 서커스리슨의 공연과 24일 오후 5시에는 남원 평한투원 정문에서 창작민속 국악팀 악바리, 싱어송라이터 고니밴드의 무대가 열린다.

재단은 이번 청춘마이크 전북권 자체 추가공연을 문화가 있는 주간에 진행하는 정규공연 이외에도 더 많은 전북도민과 터미널 이용자, 원광대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기획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SNS(www.facebook.com/jmrc2018, 청춘마이크전북 검색), 그리고 문화사업팀(063-230-7442)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